

2018.01.29

한-미FTA 제2차 개정협상 서울서 개최

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



- 금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을 진행 이후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차 한미FTA 개정협상이 시작됩니다.
-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한미FTA 1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 "자동차 분야가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슈"라고 밝혔고, 미 무역대표부(USTR)도 협상 후 성명에서 "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" 고 말했습니다.
- 1차 개정협상에서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국내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비롯해 자동차·철강 모두 원산지 규정 변경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미국은 이번에도 자동차 분야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조치, 세이프가드 문제를 거론하며 수출규제를 개선하라고 맞설 전망입니다.

2018.01.29

개정논의 요구사항(예상)

한국 측

- 미국의 세이프가드 같은 수출규제를 개선하라고 맞설 전망입니다. 최근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한국산 제품도 포함시켰습니다. 이에 한미FTA 조항 중 협정국의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'제외할 수 있다'는 부분을 '제외해야 한다'로 바꾸자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미국 측

- 자동차 분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의 수입 할당 확대와 배출가스 기준 등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

한-미 FTA 개정 논의 진행사항

2017년

- 7월 12일 : 미국 무역대표부(USTR)의 한-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청
- 7월 24일 : 한국 정부 한-미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 서울에서 협상을 열자고 역 제안
- 7월 30일 :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
- 8월 22일 :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개최
- 10월 4일 :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개최

2018년

- 1월 5일 : 한미 FTA 1차 개정협상
- 1월 31일 : 한미 FTA 2차 개정협상

2018.01.29

개정협약의 후 개정절차

- 한국은 한미 FTA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, 공청회 개최,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합니다. 이후 관련 안건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올려 논의하고, 국회 보고를 거쳐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.
-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(TPA)에 따라 양측이 개정협의를 한 뒤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합니다. 이후 연방관보 공지, 공청회 등을 거쳐 협상개시 30일 전에 협상 목표를 공개합니다. 이 같은 과정을 밟고 나서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을 합니다.

